

남해안권 '경제·물류·휴양 허브'로

목포~부산 2시간대 생활권 선 벨트… 2020년까지 24조3천억 투입

정부 동서남해안권발전 총합계획안 확정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가 경제·물류·휴양의 허브 기능이 어우러진 2시간대 생활권의 선 벨트(Sun Belt)로 탈바꿈하게 된다. '태양이 비치는 지대'라는 뜻의 선 벨트는 남해안에 일조량이 풍부한 점을 고려해 붙인 별명이다.

정부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관보를 통해 이 계획을 고시한 뒤 과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나가게 된다.

확정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 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동서 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다도해권, 남도문화권 등에 특색있는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여수와 부산 등에 크루즈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을 나선다.

또 조선(부산·신안·고성), 항공·우주(고흥·사천), 해양바이오(안도)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남해안 일주 철도·도로 및 내륙 연계 교통망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광양·남해 등 남중권을 남해안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며 여수박람회와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위



해 여수신항 주변 정비, 신월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에 섬진강 대마로드 조성, 여수~남해 간 연안 맷길 개척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着手하기로 했다. 진도 팽목항·부산 가덕도 개발 및 경남 거제 지세포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등 지역 자체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올 10월께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정부 차원의

전담팀과 자체 간 협의회 등을 발족할 예정이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체에는 전남·부산, 경남의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군구로, 면적으로는 1만2753㎢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는 2020년까지 민자 등 총 24조3000억원을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48조 원, 부가가치 유발 20조원 및 2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30주년기념 서울행사가 열린 18일, 서울광장에서 5·18민중항쟁 30주년 서울행사위원회 김근태, 이승화 공동위원장과 이두수 추진위원회가 헌화·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행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사업 선정

지리산권 자전거 돌레 길 조성 등도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과 지리산권 자전거돌레길 조성 사업 등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협력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협력사업 최종 평가 결과, 5건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 ▲지리산 애코밸리지 사업 ▲지리산권 자전거 돌레길 조성 사업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은 영산강 유역 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황포돛배 등 시·군을 연계한 생태 관광상품으로 관광 수요

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3개 시·군이 제출한 연계·협력사업 339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 1차평가와 종합심의회 서면평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사업 타당성 및 지역 특화성 등을 종합평가해 1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전남도 내 15개 시군은 2011년 광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 우선 편성, 국고보조율 1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며 올해 10월 정부포상을 받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 본격 추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사업 선정

지리산권 자전거 돌레 길 조성 등도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과 지리산권 자전거돌레길 조성 사업 등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협력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협력사업 최종 평가 결과, 5건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 ▲지리산 애코밸리지 사업 ▲지리산권 자전거 돌레길 조성 사업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은 영산강 유역 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황포돛배 등 시·군을 연계한 생태 관광상품으로 관광 수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市·道로 권한 이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한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입원인면 보고, 임원 중 감사의 주권 등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인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초중고 학습내용 20% 이상 줄인다

2014년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오는 2014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내용이 20% 이상 줄어든다. 대신 낮은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수업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교과부는 과목, 학년 간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과별 단원, 주제 수를 조정해 학습내용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교과 개편안을 고시하고 2012~2013년 교과서를 개편해 2014년부터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기당 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여 각 학교가 수업시간을 교과별로 20% 범위에서 자율 운영도록 했다.

교과부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일단

현장 교사들이 지적하는 과도한 학습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교과부는 국어와 사회, 과학과 기술 등 다른 과목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내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낮은 시간에는 기업, 대학의 기부 등을 유도해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7월부터 교과 특성을 살린 사례 중심 학습, 팀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자율형·기숙형·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대표학교(258개)와 특목고(134개) 등 2천700개 학교에 먼저 적용된다. 대학 강의처럼 2~3시간씩 연달아 진행할 수 있는 '블록 타임제'도 운영된다.

/연합뉴스

"의정활동 못했다"… 의정비 반납

화성시의회 의장 등 선거후보 3명 1026만원 거부

경기도 화성시장 한나라당 후보인 이태섭 화성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후보인 흥일성, 백남영 시의원이 "오는 6·2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5월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활동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세비를 반납하는게 순리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등은 화성시의회에 의원 세비 자진 반납의사를 지난 14일 공식 통보한 뒤, 오는 20일 지

급예정된 세비(1026만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활동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세비를 반납하는게 순리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복돼지 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북·세관금 전문업자)

▶ 펜션건물 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 1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월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수임수

• 땅값 비단 비단이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적합함.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하고 한기로운 전원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

로 펜션투자자 편리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

는 낸 25%이상 보증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적기!

‘죽’

엘지라도 연복교 개통

“특급 펜션부지”

• 위 치 •

신안군 중도 “엘도라도”

정문 2차선 포장도로 접

우전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치한 모양 좋은 평평한

소나무 밭

• 용 도 •

특급 펜션부지

(사계절 관광객 운영가능)

• 평 수 •

1,123㎡(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

1억3천만

• 연락처 •

010-9005-2223

광고접수안내

• (062)227-9600
• FAX:(062)227-9500